

선수촌 불교관 매일 禪 특강

아시아 경기 중 범어사 등 14 사찰 템플스테이 운영

백양사 국제수련장 개설 외국인 유치

해원정사서 6차례 영산대재 시연

부산불교교육대 태국서포터즈 구성

불교계가 템플스테이와 영산대 재 시연, 선수촌내 불교관 운영 등 부산아시아게임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해 성공적인 개최를 발원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2002 월드컵 기간 동안 외국 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템플스테이를 부산아시아게임과 합창올림픽(10월19~27일) 기간에도 운영한다. 부산 지역의 범어사, 내원정사, 삼광사를 비롯해 통도사, 동화사, 전등사 14개 사찰이 운영하는 템플스테이는 9월 26일부터 시작돼 이달 31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템플스테이의 특징은 월드컵 템플스테이에 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조계사와 불은사는 숙박 제공을 하지 않는 대신에 발우공양, 참선실수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템플라이프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대문사, 월정사, 남양주 보광사는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백양사는 외국인을 위한 국제 선수연장을 개설, 심도깊은 선수연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유치한다. 또한 월드컵 기간 중 외국인에게만 개방됐으나, 이번에는 내국인에게도 개방된다. 예약은 월드컵 홈페이지

(www.worldinn.com)를 통해 이뤄진다. (02)732-9925

영산재보존회와 부산불교연합회도 4~6일과 11~13일 총 6차례에 걸쳐 부산 해원정사에서 영산대재를 시연한다. 태고종과 조계종의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전통불교문화를 알리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선수촌내 초등학교 교실을 개조해 참가 선수들을 위한 불교관도 9월23일 문을 열었다. 법당, 참선실, 전사실, 휴게실 등을 마련한 불교관은 조계종과 천태종, 법화종이 기간을 나눠 운영한다. 특히 대회기간중 매일 오후 2시에는 선에 대한 특강과 문화행사가 마련돼 한국불교와 참선법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부산불교교육대학은 70여 동문 재학생으로 태국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사물 4종 등을 이용해 응원전을 펼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하나된 마음으로 달렸습니다”

성화 봉송한 문수암 대활스님

“아시아 게임 성공을 기원하는 불교계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 달렸습니다.”

9월 19일 울산시 북구 현대문화회관에서 성화 봉송 주자로 발원한 문수암 주지 대활스님(사진, 이날 스님은 11명의 봉송 주자들과 함께 1.1km를 달렸다.

마라톤 풀코스 14회 완주 기록을 갖고 있는 스님은 매일 새벽 예불후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10km를 달리며 마라톤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출애 없이 뛰여 다닌다고 좋지 않은 시련도 있다”며 웃어 보이는 스님은 그러나 마라톤이 곧 수행방편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마라톤 풀코스 100회 완주를 목표로 염불로 호흡을 조절하며 달리고 있다. 천미희기자

전등강맥 전수법회 봉행

5일 송광사서 능허·현진 스님 등 9명에

경허스님으로부터 한암, 탄허, 무비스님(조계종 교육원장)으로 내려오는 강맥이 능허스님(조계종 불학 연구소 소장) 등으로 이어지는 전등강맥(傳燈講脈) 전수법회가 봉행된다.

5일 오전 11시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되는 법회는 능허스님의 고불문, 무비스님의 훈화, 현진스님(송광사 승가대학 강주의 발원문 순으로 봉행되며, 총무원 관계자 및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 강주스님들이 참석해 강맥 전수를 축하한다.

행사와 관련 원형스님(조계종 중정 예경실장)은 “조선시대에는 강맥 전수식이 공개적으로 봉행되었으나 해방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행해졌다”며 “전통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대중 앞에서 강맥의 권위를 높이고 공의에 동참을 얻기 위해 이번 행사가 봉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강(傳講)이란 교화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을 의미한다. 즉 부처

님과 스승의 학적 토대를 제자에게 물려주는 의식이다. 행사에서는 강(講)할 능력을 인정받은 강사에게 대중이 삼배를 올리고 스승이 그 강사에게 법호를 내린다. 전강 제자는 개당설법을 통해 공인을 받는다.

이번 강맥 전수자로서는 능허, 현진, 원형, 지상(전 해사 승가대학 강사, 용화범어사 승가대학 강사, 정한(범어사 승가대학 강사, 지성(불광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상현(전 해인사 승가대학 강사, 현석(동화사 승가대학 강사)스님 등 9명이다.

남동우 기자

항일기념식·햇불행진

제주 법정사 등

제주 중문청년회(회장 오상호)는 5일 오후 3시 서귀포시 하원동 법정사와 법정악, 천제연 광장, 중문초등학교 등지에서 ‘제 8회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및 햇불행진’을 개최한다. 무오 법정사 항쟁은 1918년 10월 4일부터 3일간 제주지역 스님과 신도, 주민 등 4백여명이 봉기했던 제주도 최초의 항일항쟁이다.

1운봉 이전의 최대무장 투쟁이다. 유족을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장, 성역화추진위, 지역주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는 법정사에서 추모제, 어린이 웅변대회, 봉화제, 햇불행진 순으로 진행된다.

오상호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의 역사를 되돌아 보며 선조들의 항쟁 정신을 이어받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익기자

멸종위기 가시연꽃

경주건천에 군락형성

멸종위기의 가시연꽃 군락지가 경주에서 발견됐다.

산림청이 보존우선순위를 1순위로 지정할 만큼 희귀식물인 가시연꽃이 발견된 곳은 경주시 건천읍 신령 2리 부처못(물지)과 서면 아화 4리 곤돌못(물못)으로 3~4년 전부터 자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야 발견된 이유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희귀식물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가시연꽃의 여러부분이 한약재로 쓰이고 있어 혹 무분별한 채취로 이어질 공산이 커 실태파악과 보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원규기자

불국사 자원봉사단 월내 발족

호스피스 지원등 사회활동 적극 참여

경주 불국사에 자원봉사단이 결성된다.

불국사 교구 대중스님과 산하 16개 신도단체 회원 300여명으로 구성되는 자원봉사단은 이달내 결성식을 갖고 호스피스 지원, 불국사 자체 안내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키로 했다.

불국사는 특히 지역별 중심사찰을 지정,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조정을 통해 적절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라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불국사 스님들을 비롯 보현회, 진여회 등 16개 신도단체의 사부대중은 9월 1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자원봉사단을 설립키로 결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보살도의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시급하다고 보고 자원봉사단을 구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박원규기자 bak09@buddhapia.com

석굴암 유물전시관 건립 재심의

위치싸고 양론...사안전체 다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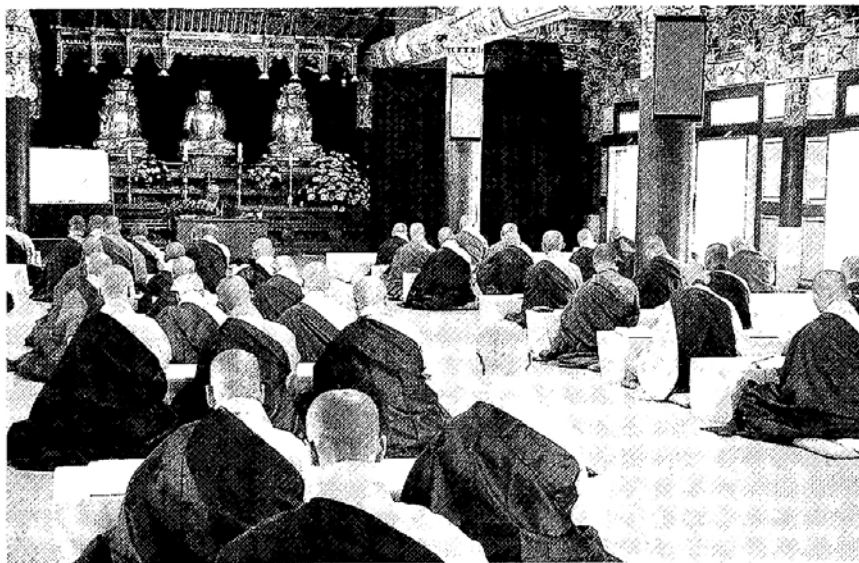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된다.

문화재청은 9월 26일 문화재위원회 1부(건조분) 회의를 열어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 문제를 문화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특히 건립 위치를 중심으로 찬반 양론이 팽팽한 만큼 건립 사안 전체를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다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건립 위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건립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해 10월 건조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석굴암에서 동남쪽으로 105m 떨어진 곳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역사유물 전시관을 짓기로 결정했지만 올 4월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계 일부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권형진 기자



△해인사 개산 1200주년을 맞아 개최된 무비스님 임제록 산림법회에 전국에서 100여명의 스님들이 참가했다.

무비스님의 ‘임제록 산림법회’

해인사 개산 1200주년 기념...전국서 100여 스님 동참

법보총장 해인사·개산 1200주년을 맞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연 무비스님 ‘임제록 산림법회’에 전국에서 100여명의 스님이 법석에 참가, 눈길을 끌었다.

법회에서 무비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은 “임제 의현 스님 가르침의 핵심은 경성성불과 무위신인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설하고 “거친 사바를 숨쉬며, 무상의 세월을 견디는

힘 또한 우리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사모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는 원력 또한 우리를 스스로의 결단”이라며 경성한 이의 삶이 바로 ‘진인(眞人)’이라고 강조했다.

박원규기자

베트남 유일의 한국 사찰인 관음사가 한·베트남 문화 교류의 물꼬를 트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말끔히 씻어낸 월남전 희생영가 합동 위령재를 봉행해 관심을 모은다.

범음 법회 의식을 베트남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의미도 있어 한층 뜻깊다.

위령재 봉행위원회 집행위원장 보각스님은 “한국의 불자들이 잘못된 역사를 고리를 풀자는 마음

베트남 호치민시 개원 관음사

월남전 희생영가 합동위령재

1년전 베트남 호치민시에 개원한 관음사는 한·베트남 불교문화 교류 협의회(회장 정각·덕희)에 인함을 구성하고 8일 제1회 월남전 희생영가 한·베트남 합동 위령재를 연다.

이날 전도재는 한국의 전통적인

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 신종 타종식에는 한향, 현대, 대금 독주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를 비롯해 김석현교수의 ‘성덕대왕신종의 진동 및 율령특성 분석’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종의 상태를 진단하고 원주상에서 신종의 맥놀이 분포 데이터를 확보, 맥놀이 지도를 작성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원규기자



△오미야 총무(왼쪽)는 주지 스님에게 배운 수목화를 그리는 대로 신도들에게 가르쳐 준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사찰에 나와서 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인지 매일 마주 대하는 신도들이 친형제처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충주 흥천사 대구포교원 신도회 오미야 총무(46·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도반 사랑은 이처럼 각별하다. 형편이 어려운 신도들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소식을 듣는 즉시 달려가 위로하고 도움을 준다. 또 월 행사 끝난 뒤 음식이 남으면 정성스레 보자기에 싸두었다가 신도집은 물론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 보시행을 펼치기도 한다.

“흥천사는 대구지역 신도들이 많

“절에서 보내는 시간 더 많아요”

흥천사 대구포교원 신도회 오미야 총무

소제 분입(개)이 시작되지요.”

절에 들어서자마자 오 보살은 사시불공 준비, 사찰 재정 관리, 공간 일 등 특별히 일에 경계를 두지 않고 맞닥뜨리는 대로 팔을 걷어부친다. 또 일을 하다 신도들이 힘들어 하는 기색이라도 목격하면 절쪽한 입담으로 웃음을 유도하는가 하면, 등을 토닥여 주기도 한다. 이따금 짝이 생

르신들이 충주 본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신의 차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충주까지 모시고 간다. 이렇듯 절 신도들에게는 넉넉한 오 보살이지만 사찰의 재정문제 만큼은 짚순이 소릴 들을 정도로 엄격하다.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오 보살이 판단해 꼭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사찰의 지갑은 열리지 않는다.

“사찰의 삼보정재는 신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생각에 집에서 살림할 때보다 몇 배나 더 간혹재정을 펼쳐주세요. 보시금은 되도록이면 불사나 신도들의 복지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신경을 씁니다.”

오 보살은 자신의 신생활에도 게으른 법이 없다. 매일 사찰에 나오기 전 집에서 1080배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30분 독송한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불교기초교리’ 강좌에도 빠지지 않는 건 물론이다.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

주년의 말

동봉스님 흥천사 주지



보통 주부들은 사찰일에 몰두하다 보면 본의아니게 가정일을 대충 할 수도 있고, 개인의 신생활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오미야 총무는 사찰에서는 모범신도이며, 가정에서도 모범 주부로서 1인 다역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보정재를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은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합니다. 모든 신도 하나하나가 귀중한 보배와 같지만 이들을 불행회를 없이 한마음으로 이끄는 오 보살이야말로 우리절을 진실히 해주는 기둥이라 생각해 늘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보살은 이렇게 말하며 월례행사의 하나인 흥북 증평의 군부대와 전경부대 위문을 위해 사찰문을 나섰다.

김주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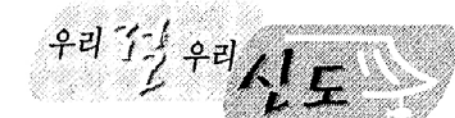
“천년의 울림”

다시 듣는다

개천절 성덕대왕신종 타중

3일 개천절에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국보 제29호) ‘천년의 울림’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타중은 성덕대왕신종의 진동 및 율령특성을 분석하여 종의 인전



불공준비·재정관리등 모든일 열성

삼보정재 신도의 피와 땀 “아껴야죠”

기 때문에 대구에 따로 포교원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일터로 가면 저도 40분 거리에 있는 포교원으로 출근 합니다. 그때부터 비로

면 주지 스님에게 배운 어설픈 솜씨지만, 서예와 수목화를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대구 포교원에 있는 나이든 어